

9/26/21

설교 제목: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6 장 1-36 절

(출 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출 16: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 16: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 16: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출 16: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출 16: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출 16: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 16: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출 16: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 16: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16: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 16: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출 16: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 16: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 1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출 16: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출 16: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출 16: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 16:2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출 16: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 16: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 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출 16: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출 16:26) 옛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 16: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출 16: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출 16: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 16: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 16: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깻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32)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출 16:33)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 16: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출 16:35)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 16:36)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 16: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 16: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출 16:4 전)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 16: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출 16: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출 16: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 16: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진에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떡 같은 희한한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

(출 16: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 16: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16: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 16: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출 16: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 16: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에 내리는 떡 같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만나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보고 서로 "이게 뭐지?" 라고 물었던 말 "만 후"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만나는 모양이 작고 둥근 서리 같았으며 낫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는데 해가 뜨면 스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나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각 사람의 머리 수대로 하루 먹을 분량의 양식만 거두라는 것이고 둘째 그 날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 두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 제 7 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대신 그 전날에 이틀 분의 식량을 거두어 그것으로 안식일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출 1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둔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지니라 하셨느니라

(출 16: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출 16: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 16: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 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출 16: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어 나간 백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출 16: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출 16: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 16: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세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 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 16: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 16: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6 일간 힘써 일한 후 하루를 쉬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풀고 활력있는 삶을 위한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내가 쉬어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케 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안식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양식과 생존을 위해 스스로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풍족함은 자연이나 인간 스스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할 때 아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섯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면서 행하는 수고는 실상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껴서 그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 그것에 발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못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겠다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가 보았으나 결국 아무 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출 16: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짐을 하나님 당신이 지겠고 우리는 그저 당신만 믿고 당신 하라는대로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의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종종 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외형적 행위의 요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은혜의 제안이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시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율법과 복음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진정한 안식의 비결을 소유한 자만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알아도 믿음으로 확인해 볼 용기를 내지 못해서, 세상적 관심 인간적 염려 물질적 욕심이 강해서, 주일에도 안식보다는 계속적인 일과 돈벌이를 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은 오늘의 안식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평안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굳이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고만큼 헛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일하고 애쓰고 벌어들이고 남기고 모아 두는 그러한 어리석고 욕심스런 삶에서는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벌레가 꿀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셨듯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6:35)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